

보도시점 2025. 12. 4.(목) 15:00 배포 2025. 12. 4.(목) 13:30

구윤철 부총리, 피치(Fitch) 연례협의단과 면담 실시

- 한국 경제 상황과 첨단산업전략업 경쟁력 확보 등 주요 정책 방향 논의 -
- 성과 중심 재정 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목표 설명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4일(목)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협의단 : 제레미 주크(Jeremy Zook)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사가리카 찬드라(Sagarika Chandra)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구 부총리는 우선,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소비쿠폰 지급 등 신속한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25.3/4분기 성장률(+1.3%)이 큰 폭 반등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구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으며,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여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일반주주 보호 강화·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으로 새정부 들어 코스피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한·미 무역협정 및 금융 투자 협력에 대한 피치측 질의에 대해서는, 양국 간 합의 도출로 한국 경제의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대미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도 연 200억불 상한 설정, 기성고(milestone)에 따른 투자, 필요시 납입 규모·시기 조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새정부의 중장기 재정 관리 계획 등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문은 구조조정하고 초혁신경제 등 고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이 경제회복·성장의 마중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내년부터 6대 분야(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피치측은 구 부총리의 설명에 공감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피치측은 한국의 AI 대전환·초혁신경제·경제 전망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피치 연례협의단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을 포함하여 12.2(화)~12.4(목)까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 다양한 기관과 연례협의를 실시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류성열 (sung126126@korea.kr)

